

GS칼텍스, 삼성물산과 윤활유 협력

중국 산업용 시장 공동진출 양해각서 체결 ... 중국시장 12조원 수준

GS칼텍스는 11월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삼성물산과 중국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11월23일 발표했다.

양사는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중국 5개 영업법인의 거래처인 철강, 섬유, 화학 분야의 현지기업을 활용해 윤활유를 판매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2007년 제2중질유 분해 시설을 본격 가동하면서 윤활유의 기초재료인 고품질 윤활기유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산업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윤활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GS칼텍스는 8월 한국타이어와 중국 자동차용 윤활유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중국의 윤활유 시장규모는 12조 원 수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윤활유가 64%, 산업체용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GS칼텍스 정유영업본부장 나완배 사장은 “인디아 현지법인 설립, 한국타이어에 이은 삼성물산과의 제휴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현재 20% 수준인 윤활유 수출비중을 앞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3>